유승희 비전대 교수, 원격교육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전주비전대학교 유승희(간호학부) 교수는 제3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MZ세대 맞춤형 융복합 교수법을 적용한 원격교육 사례'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격교육 환경의 변화 및 MZ세대 분포 비율이 증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서 고정적이고 형식적인 학습 절차에 융통성을 적용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강의에 대한 고정적 시?공간을 탈피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승희 교수는 "'쓸모 있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항상성(homeostasis)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수로서 학습자의 니즈(needs)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학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 앞으로도 내 자신이 처음 강단에 섰을 때의 교육적 신념이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작들은추후 교육부 산하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김민희팀장, 산학협력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민희 팀장이 8일 2023 산학협력 EXPO에서 산학협력 유공자로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민희 팀장은 2005년부터 전주대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지역혁신센터(TIC)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INC+) 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R&D 기획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산학협력단 R&D기획팀장과 연구관리팀장으로서 다양한 연구과제의 발굴 및 유치, 관리업무를 충실히 감당해 매년 400개 이상의 연구과제 수주와 효율적인 연구 활동 및 집행관리를 통해 산학협력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민희 팀장은 "지난 18년 동안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산학 협력사업을 수주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관리 등 산학협력단의 견고한 산학협력 기반을 다져온 보람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양예일 비전대 학생, 영상콘텐츠공모전 최우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양예일(자동차과 2년) 학생은 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 산학협력 EXPO 영상콘텐츠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참여하는 전국 59개 전문대학에서 118편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이에 따르면 양예일 학생의 작품은 LINC 3.0 사업 산학연계 교육과정 참여계기와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창업동아리 등에 참여하면서 배운점, 달성한 목표, 어려웠던 점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모했다.

양예일 학생은 "이번에 참여한 LINC 3.0 사업의 미래형자동차부품정비 교육과정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고, 나의 미래를 향한 도약에 있어 첫 걸음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며 "2학기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은 산업체 실무환경과 같은 실습실과 기자재 구축, 산업체 전문가 지도 참여로 참여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LINC 3.0 사업에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전북교육청-학운협, 8일 14개 시군 초·중·고교서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윤호, 이하 전북학운협)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학운협이 주관하고,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역교육청이 함께한 이날 캠페인에는 도내 6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해당 학교 인근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맞춰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환경 조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친구에게 편지쓰기 키트'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윤호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육공동체 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주서신초 캠페인 현장을 직접 찾은 서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행복한 학교를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주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인권센터, 인권 문화축제 개최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7일~8일 양일간 학생회관 로터리 일대에서 인권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는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대학 내 카운슬링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원 등 내부 기관뿐 아니라 전주 여성의 전화, 전주트라우마센터, 전북 이주여성상담소, 전북 노동권익센터, 완산경찰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총 12개의 외부 기관이 부스를 열었다.

문화축제는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 골든벨, 호신술 실습, 인권 모의고사,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인권이라는 다소 무겁고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소현성 센터장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내 인권 관련 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이번 축제 참여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오는 17일과 24일 전북 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2023년 전북지역 대학생 인권 현장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김제시약사회, 업무 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8일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와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복약지도·상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복약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에 양 기관이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시 약사회는 지속적인 지역복지 후원 활동으로 지역상생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2022년도부터 '독거노인 정성 가득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복약지도 상담사업은 2024년도부터 노인맞춤돌봄 3개 수행기관과 협업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상담을 통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심층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약지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의료급여의 비용을 절감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업무 협약 체결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제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등, 농촌일손돕기·플로깅 캠페인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7일 범농협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정읍시 영원면 과수농가를 찾아 수확기 농촌일손돕기와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범농협(전북본부, 정읍시지부, 정읍원예농협) 임직원과 유관기관(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및 회원 등 20여명은 사과 수확작업을 도우며 수확기 바쁜 농가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농협과 함께하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며 마을주변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자재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재연 지부장은 "수확기를 맞이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 '최우수 터전' 선정

남원시는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4일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2023 청소년활동어워즈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남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춘향골암행어사'가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참여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도지사 △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어깨동무'가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전라도 교육감 △동아리 '동행'이 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전북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년수련관 류진호 관장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자주 마련해 건강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아시안게임 은메달 최솔규 선수 격려

진안군은 8일 군수실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최솔규 선수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된 아시아게임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3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으며 최솔규 선수는 배드민턴 남자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요넥스 배드민턴단 소속인 최솔규 선수는 부친 최영회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진안군 정천면에 거주 중이다. 덕분에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최솔규 선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열기가 진안군을 가득 채웠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대한민국과 진안군의 명예를 선양한 최솔규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이후 참가하는 대회에서도 부상없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춘향장학재단,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지급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은 8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골프와 택견 부분 수상자 안해천 선수와 김성민 선수에게 '남원의 별'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제2의 타이거우즈를 꿈꾸는 안해천 선수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처음 골프를 시작, 유망주로 인정받은 선수로 꾸준한 연습과 노력 끝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골프 남자일반부에서 수상하며 기량을 뽐내었으며, 김성민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택견에 입문에 꾸준하게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택견 남자18세 이하부에서 수상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배종철 부이사장은 "안해천·김성민 선수가 남원의 명예를 드높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격려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부안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허진규 회장은 부안군 보안면에서 7형제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28살의 젊은 나이에 일진을 창업했다.

장기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뚝심경영'으로 동복강선과 공업용 다이아몬드, 일렉포일(동박) 등의 소재 국산화를 이뤄냈다.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을 간다'와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반드시 개발한다'를 경영 원칙을 세우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현장경영을 통해 2010년에는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허진규 회장은"고향의 산과 들, 어릴적 추억, 어느하나 나를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며 "나의 뿌리인 내고향 부안이 지속 가능할 수만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니 감사하다."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더욱 밝은 부안군의 미래를 향해 나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으며, 지자체에는 재정확충과 지역특산품(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1석4조의 혜택있는 좋은 제도이다.

/부안=김석진 기자